

# “협치 통해 민생·경제 살리고 호남에 새로운 희망 주겠다”

## 일자리 창출 위해 법·제도적 지원

### 장병완(국민의당 동남 갑)



지속 발전이 가능한 국가 경제의 틀을 만들고 호남 등 낙후 지역의 산업 구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광주의 미래를 위해 현존 에너지 벨리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 양성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과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 나주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16년만의 여소야대, 20년만의 3당 구도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남에 있어 20대 국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호남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의당 녹색 바람을 일으켜 3당 구도를 만들어 냈다. 정권 창출을 위해 야권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호남 민심의 준엄한 요구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변수가 아닌 상수로 정치적 위상이 강화된 호남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정치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책무도 무겁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정권 교체에 걸림돌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에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다.

## 광양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 최선

### 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민생에 모든 것을 걸겠다. 특히, 민생 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서민과 소외 계층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밀알이 되겠다. 가슴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 현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정치적 수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민생과 함께 하겠다. 광양항 활성화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농어민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뛰겠다.

## 광주 면세점유치·중문화원 설립 최선

### 박주선(국민의당 동남 을)



시대적 과제는 민생도, 외교도, 대북 관계도 병행 수준인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호남 민심을 토대로 2017년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면세점 유치와 중국 문화원 광주 분원 설립 등을 통해 광주가 중국을 품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책·예산·인사 호남 차별 맞서 싸울것

### 최경환(국민의당 북구 을)



광주와 호남의 권의 대변에 앞장서겠다. 정책, 예산, 인사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에 정면으로 맞서고 싸워나갈 것이다. 금기화(금요일 지역 구 회관, 월요일부터 국회 의정활동)를 실천, 현장의 민심의 목소리를 담아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 전국의 김대중 세력, 남북화해협력세력을 규합, 정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강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실제 밝힐 것

### 이용주(국민의당 여수 갑)



보수 세력의 집권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역사의 퇴행을 막는데 역할을 하겠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의 실체를 밝혀내겠다.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여수관광 발전, 울촌 2산단 조기 완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 ‘농어업 희망찾기’ 균형발전 온 힘

### 이개호(더민주 담양·장성·함평·영광)



지방의 미래인 ‘농어업의 희망 찾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의 온기가 호남을 비롯한 전국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더민주 국회의원으로서 골절 없는 호남 민심 전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더민주가 새롭게 거듭나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주춧돌이 되겠다.

##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것 걸겠다

### 송기석(국민의당 서구 갑)



보수 정권에서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겠다. 민생 문제에 해결에 모든 것을 걸겠다.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한 소득 구조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확대, 전월세 상한제, 최저임금 인상, 법원세 원상회복, 사내유보금 과세 등에 나서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

## 차 100만대 기지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

### 김동철(국민의당 광산 갑)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기필코 이뤄내겠다.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광주 민심과 함께 하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 기업의 혁신 마인드를 살려 재벌은 전문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독립적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조성 등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

## 일자리 창출·울촌2산단 조기완공 주력

### 주송웅(국민의당 여수 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울촌 2산단의 조기 완공에 힘 쓰겠다. 여수 산업단지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통망을 확충,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여수의 미래를 위해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에 적극 추진하겠다. 여수 세계박람회 부지의 미래 지향적 활용 방안도 20대 국회 내에 만들어내겠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당이 수권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 소득세 고향 발전 사용 ‘고향세’ 추진

### 황주홍(국민의당 고흥·보성·강진·장흥)



20대 국회는 일하고, 또 일해야 한다.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구해야 한다. 개혁 국회 건설에 몸 바치겠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이끌고 호남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 또 자신이 낸 소득·주민세 일부가 고향 발전에 쓰일 수 있는 ‘고향세’ 신설을 추진하겠다. 전남 쌀 재배 반기와 농림축산산업 정책자금 1%대 금리인하에도 나서겠다.

## 호남 낙후 극복 지역평등특별법 제정

### 천정배(국민의당 서구 을)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평등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지방교부예산 ‘총량쿼터제’를 도입,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방 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통합, 호남과 같이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대선에서 호남 주도 정권 교체를 이뤄, 지역 평등의 뉴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인사, 예산, 정책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겠다.

## 법조비리 근절 사법개혁법안 마련

### 권은희(국민의당 광산 을)



국가 전반의 안전 문제를 점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 전관 예우 등 만연해 있는 법조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법안을 마련하겠다. 대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력업체보호법’을 제정하겠다. 강소기업 유치, 지역 산단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

## 순천에 국립 보건과학대 반드시 유치

### 이정현(새누리당 순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순천에 국립 보건과학대와 부속 병원을 반드시 유치할 것이다. 순천을 문화예술관광체육도시로 육성하겠다. 여기에 광양 컨테이너항 확장 등 광양만권 활성화에도 나서겠다. 새누리당 대표에 도전, 호남 출신 최초로 당권을 잡겠다. 이를 통해 기존 새누리당의 소외 지역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확 바꾸고 정치 및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

## 해남·진도·완도 ‘공동협약체’ 운영

### 윤영일(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의 발전과 농어민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해남, 진도, 완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3개 군 인사들로 구성된 ‘공동협약체’를 구성, 운영하겠다.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이끌고 스마트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나서겠다.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여야를 넘어 협치를 주도하면서도 야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매진하겠다.

## 문화도시 콘텐츠 발굴 광주관광 창출

### 김경진(국민의당 북구 갑)



로봇과 인공지능의 진화 등 4차 산업혁명의 격변이 시작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삶과 사회, 국가를 근본부터 재구성 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국가와 정부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 하겠다. 광주역 문제를 지역 발전과 연계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콘텐츠를 발굴, 광주 관광의 핵심 모델을 창출하겠다.

## 일하는 국회, 민생·경제살리는 국회 만들것

### 박지원(국민의당 목포)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용광로로 만들겠다. 국민의당이 선도 정당이 되어 협치를 이끌어 서민·지역·골목경제와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청년고용촉진법 등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겠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 진상 규명,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하겠다.

## ‘소통과 협치’ 통해 화합 정치 하겠다

###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



막말하지 않는 품격의 정치를 하겠다. 20대 국회의 키워드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선보이겠다.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정치로 민심의 신뢰를 얻겠다. 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어 정치 일선에서 총돌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3당 구도 속에서 국민의당이 협치를 이끌어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농수축산업 융복합으로 경쟁력 강화

### 박준영(국민의당 무안·신안·영암)



농수축산업을 발전시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식량 산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농수축산업을 일자리가 대단히 많은 분야다. 농수축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분야로 키워나가겠다. 여기에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10대 공약을 실현해 내겠다.

# 2016 법성포 단오제

## 천년의 어울림

法聖浦 端午祭

국사무형문화재 제123호

2016년 6월 9일(목) ~ 12일(일)

법성포 뉴타운 일원

### 주요 프로그램

- 난장뜨기(5월11일)
- 용왕제 / 선유놀이
- 제 15회 전국국악경연대회
- 제 11회 전국그네뛰기 대회
- 제 11회 단오장사씨름대회

· 주최 \_ (사)법성포단오보존회

· 후원 \_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영광군, 한국수력원자력(주)안빛원자력본부, 영광군수업, FEELUX (주)필룩스(회장 배상운)

· 홈페이지 <http://bspdanoje.co.kr>

· 문의전화 061)356-4331 / 4334/4335